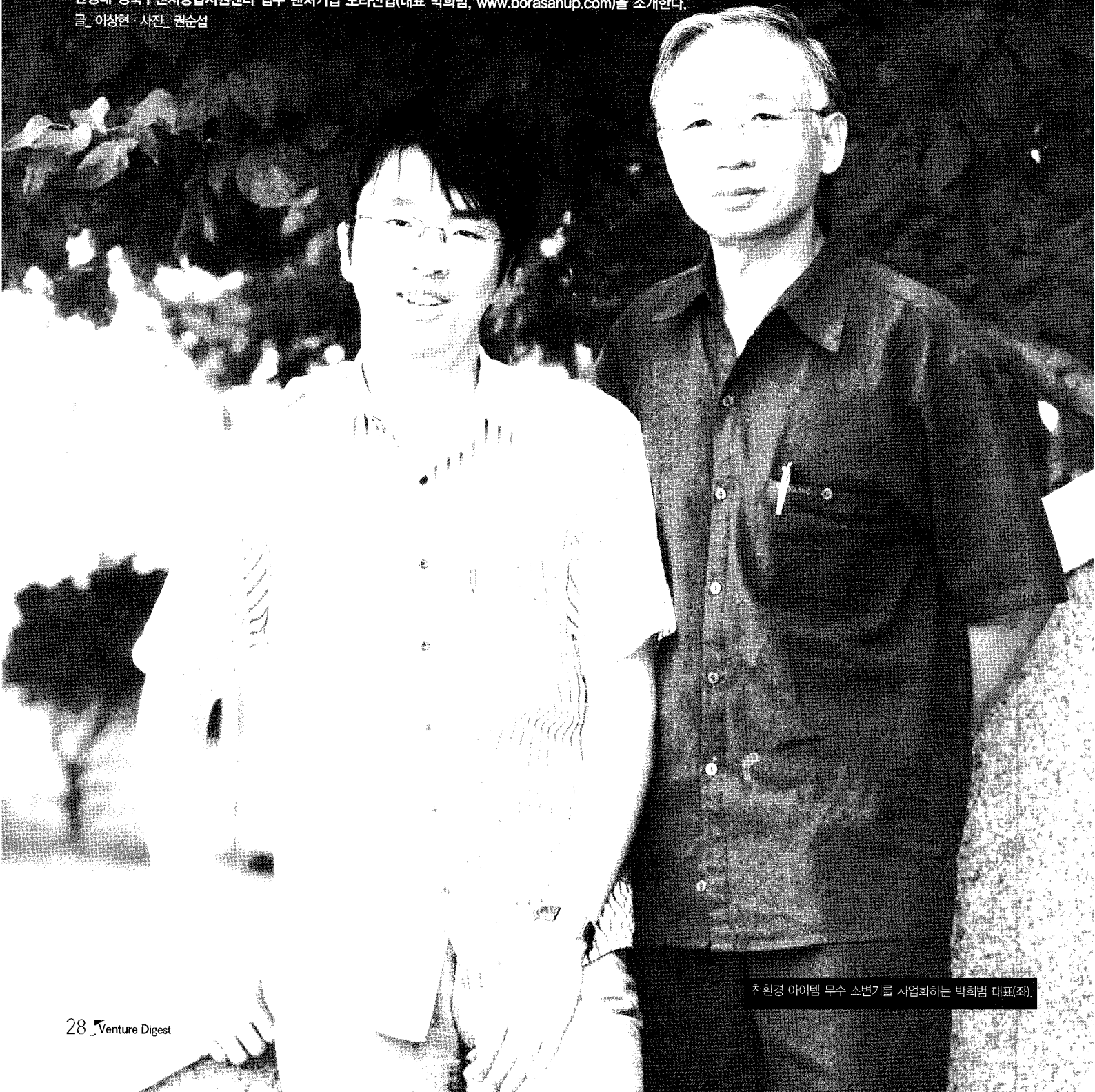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한 친환경 벤처!

보/라/산/업

지구에 물이 사라진다면? 각국의 나라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것이고 물을 많이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SF영화의 소재나고? 무슨 소리! 언제든지 우리의 피부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다. 한 마디로 물을 아낄 줄 알아야 강해질 수 있다는 소리다. 그 물을 아껴 보겠다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한성대 성북구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벤처기업 보라산업(대표 박희범, www.borasanup.com)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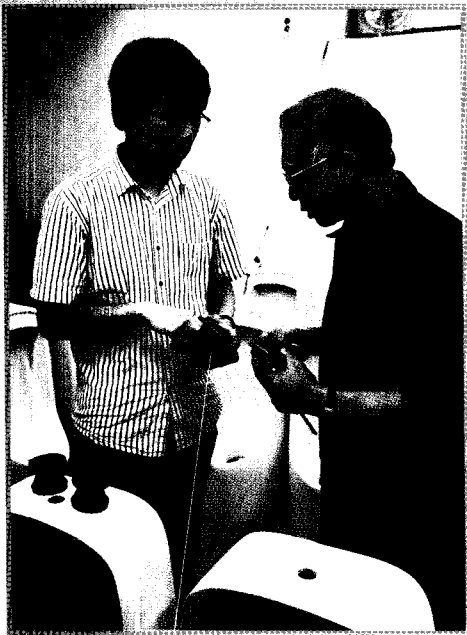
글 이상현 · 사진 권순섭



친환경 아이템 우수 소변기를 사업화하는 박희범 대표(좌).

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최근 지구상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는 누가 뭐래도 '친환경'이다. 지구 온난화와 맞물려 날이 갈수록 아파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물과 관련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구에 발붙이고 사는 생물 중, 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지구 온난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물을 아끼기 위한 노력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전히 물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관공서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절약을 습관화하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일찍이 알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한 기업이 있으니, 보라산업이 바로 그곳이다. 보라산업이 대회에서 인정받은 기술은 다름 아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소변기 하나가 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보라산업의 무수(moosoo) 소변기의 능력은 특별하다.



물을 아끼는 핵심 부품, 보라펜스

무수 소변기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절수 효과다. 엄밀하게 말하면 물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졌다. 여기서 잠깐! 흔히 우리 주변의 소변기가 물을 이용해 소변을 정화조로 내려 보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소변을 씻어내는 청소효과와 트랩이라는 부분에 물을 고이게 해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차단하는 효과다. 박희범 대표는 "보라산업의 무수 소변기는 자체 기술인 '보라펜스'라는 부품을 이용해 악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말한다. 소변기 외벽에 묻은 소변 찌꺼기는 대부분 흘러 내려가며 하루 한 번의 청소만으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물 아끼는 것보다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자 임의로 조절이 가능한 타이머 능력도 적용할 수 있어 원하는 시간마다 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다. 그동안 물 아까운줄 모르는 국내의 화장실 문화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많았다. 물 값이 얼마나 한다고 팍팍 써가며 화장실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장소의 화장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루 수천 명이 사용하는 지하철이나 관공서, 공공장소의 화장실이라면 물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냄새와 청결. 이 부분을 위해 수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쳤지만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다. 하루 한 번의 청소만 잊지 않고 해주면 된다. 위생과 악취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은 현재 서울지하철공사의 역에 상용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하는 장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무수 소변기는 한번 설치로 부품 교체도 필요 없고 고장이 없어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없다. 작은 아이디어로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 많은 고생을 했지만 보라산업의 미래는 밝다. 해외 수출과 향후 친환경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노력이 따른다면 세계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Made in Korea'가 탄생할 것이 분명하다.